

낮은 체감안전도 지적...음주 비위·승진 청탁 도마에

광주경찰청 국감 현장

광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관들의 잇단 음주운전 비위와 승진청탁 등 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광주에서 교제폭력이 증가세이지만, 경찰의 미온대처(6월 25일자 광주일보 6면)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2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시 서구갑) 의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것은 경찰 공무원의 기강문제"라고 질타했다.

이같은 지적에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은 "지휘관까지 책임을 묻는 강한 대응을 했더니 올해 4월부터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초수급단 윙헤인(비례)의원은 광주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교제폭력 범죄를 거론했다.

윙 의원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광주에서 신고된 교제폭력 1833건 중 1044건이 현장중결로 끝났다는 점, 같은 기간 스톱킹 신고 480건 중 212건이 현장중결됐다는 점에서 경찰의 미온적 대처를 꼬집었다.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처벌 시기를 늦추다가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윙 의원은 "현장에서 반복피해는 없었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관계성 범포 대응에 부족함은 없는지 의지를 갖고 현장점검을 해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제폭력 느는데 미온적 대처 인력 확충 등 개선 계획 요구 예방치안, 시민 공감 얻지 못해 박성주 청장 "개선하도록 노력"

교제폭력은 늘고 있는 반면 대응 인력이 줄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윙 의원은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여청) 수사팀은 지난해 대비 17명에서 15명으로 줄었고 일선 경찰서 여청 정원은 114명에서 91명으로 23명이 감소했다"면서 "경찰서 여청수사팀 수사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이 46.5건에 달한다는 점에서 광주경찰청 차원에서 여청수사팀 업무 과중 정도를 파악하고 인력확충을 포함한 개선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박 청장은 "모든 부서가 인력난을 호소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는 최우선 인력을 배치해 충실히 관리하겠다"고 대답했다.

전날 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거브로커 인사청탁 문제도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광주도 전남과 마찬가지로 금품을 매개로한 인사청탁이 있어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근(제주 서귀포시)의원은 "무궁화 한 개에 1000만원으로 인사청탁이 진행됐고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가 나오고 있다"면서 "인사 제도 개선과 함께 내부 고발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경찰청에 비해 낮은 광주경찰청의 체감안전도도 지적됐다.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은 "국민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를 보면 예방치안면에서 광주경찰청은 시민들에게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왜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지 연구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도 국민체감안전도 조사 결과 광주청이 지난해는 전국 18개 시도청 중 16위, 2022년에는 14위에 그친 사실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치안 환경을 주문했다.

박 청장은 "광주경찰청 전체 직원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전남청을 벤치마킹해 내년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23일 새벽 시간대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의 도로에서 '음주헌터 유튜브'를 피해 달아나던 30대 운전자가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고 숨진 사고도 언급됐다.

박 청장은 "사적제재는 있어선 안될 일"이라고 못박으며 현재 해당 유튜브에 대한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은 지난 4월 테이저건을 맞고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테이저 건 노후화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총기사용이 극히 제한적인 우리나라에서 현장에서 가장 유력한 대응무기는 테이저건"이라며 "지난 4월 23일 북구 양산동에서 테이저건을 맞고 사망한 50대 남성에게 사용된 테이저건이



22일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0년 7월 도입됐다는 점에서 노후화된 테이저건은 안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선 경찰관들이 테이저건 사용에 위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2025년에 90점이 교체될 예정이지만 분청에 교체 필요성을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생선과 섞어 마약 밀반입...태국인 일당 무더기 적발

냄새 심한 식품과 함께 들여와 전남경찰, 태국인 27명 등 송치

말린 생선, 개구리 등과 마약을 섞어 밀반입한 태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냄새가 심한 식품으로 마약 특유의 냄새를 희석해 반입하는 수법을 썼다.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태국 국적 외국인 27명과 내국인 1명 등 28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태국 국적 외국인 18명과 내국인 1명 등 19명을 구속했고,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8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6월 합성 마약인 아바 2만정을 태국에서 우리나라로 몰래 들여와 강원·대구·경남·경북·전남 등 전국에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국인 27명 중 25명이 불법체류자이며, 이들은 마약류를 2만 정을 태국에서 냄새가 심한 식품들과 함께 여행용 가방에 넣어 항공편으로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내 총책, 중간 판매책, 소판매책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주로 유통했으며, 비대면 방식과 매수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마약류 1만1855정(거래액 기준 5억9000여만원), 대마 512.8g(5100여만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대마의 출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국제 공조 수사로 태국 공급책을 추적·수사하는 한편 아직 붙잡히지 않은 국내 유통·투약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우즈벡 출신 유학생 도박하려고 사기...실형 선고

징역 4월...법정구속은 안해

우즈베키스탄 출신 전남대 유학생이 도박을 하기위해 중국인에게 고리대금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A(25)씨

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변제를 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께 지인을 통해 알게된 중국 국적의 피해자에게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잔액증명서가 필요하니 2600만원을 하루만 빌려주면 수수료로 17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빌린 뒤 가로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갚았지만 1600만원이 아직 변제 되지 않았다"면서 "범행동기와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 농로서 잇단 교통사고...80대 2명 사망

전남지역 농로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80대 여성 2명이 숨졌다.

22일 곡성경찰에 따르면 전남 오후 6시께 곡성군 석곡면 한 농로에서 밭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A(여·82)씨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앞서 가던 A씨를 B(60)씨가 몰던 승용차가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주위가 어두워 A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6시10분께 담양군 수북면에서 도로 농로를 걷던 80대 여성이 SUV에 치여 숨졌다. 60대 SUV 운전자 C씨 역시 어둠과 좁은 농로를 주행하다 여성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 모두 음주나 무면허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 2명을 교통사고특별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유튜브 보며 운전하다 사망사고...쌍소니 50대 2심도 징역형

빗길에 유튜브를 보며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50대 쌍소니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동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밤 11시40분께 강진군 국도에서 시속 69km로 승용차를 몰다 갓길을 걷던 B(51)씨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해 후속 차

랑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 시청하면서 과속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였지만, 비가 왔다는 점에서 20% 감속 주행(시속 64km 이하)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차량의 와이퍼 조작 작동하지 않고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느라 사고 발생시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한 핸들 조작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